

개통 두달 앞둔 KTX, 멀어져 가는 '광주역 진입'

코레일, 국토부에 운영계획 신청 광주역 진입 포함 안돼

국토부 "스위치백 위험" 부정적... 다음달 초 최종 결정

오는 3월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KTX) 1단계 구간 노선 확정이 늦어지면서 광주역의 진입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2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7일 국토부에 충북 오

송부터 광주송정역까지 고속 철도(182.3km) 개통 이후 운행횟수, 구간 등을 담은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운영 구간 중 광주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광주역 진입 문제 등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해 안에 최종 운영계획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광주역 진입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빨라 오는 2월 초에야 최종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그간 제시한 광주송정역에 진입하는 KTX 일부를 광주역으로 되돌리는 스위치백(Switch-

back)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던 국토부가 광주역 진입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스위치백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열차가 선로 중간에 상당 시간 정차해야 하고 기관사 역방향 교체 등으로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12km 구간에 37분이 소요되는 등 안전과 시간상 문제가 있으며 1도시 1거점역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 역시 광주역 진입에 대해 경제

성이 떨어진다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겠지만 현재 광주시가 제시한 스위치백은 위험성이 크고 일부 열차의 종착역을 광주역으로 정하고 정읍역에서부터 기존 호남선을 따라 광주역까지 가게 하는 방식 역시 속도를 낼 수 없으므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제출

한 운영계획에 KTX 광주역 진입 건의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와 코레일 실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며 "통상 철도 운영 개시 2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을 신청하고 1개월 내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관계 기관 회의를 열 것으로 보고 대책을 준비해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지부진 10년 '어등산 관광개발' 결국 원점으로

골프장 이외 민자개발 무산

광주시, 공공개발에 무게

전담팀 구성 의견수렴

10년 가까이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골프장 이외에 민자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공공개발 방식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12일 기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만큼 개발방안에 대해 전담팀(TF)을 통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에 나섰다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계, 주민대표 등 18명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광단지 기본요소인 법적 필수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입시설에 대한 시설 계획 변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조성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가까이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될 전망이다. 사진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 부지 내 골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기존 공공편익시설인 숙박 시설의 경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축소 등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골프연습장·승마장·야외수영장·농구장 등의 운동오락시설 경우도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설계획 변경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고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가 민간개발 보다는 공공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공개발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지자체나 도시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개발은 최소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다 손실 발생시 여론악화와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 시작해 2015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단 한결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과장급 49명 승진·전보

전남도는 과장급(4급 지방서기관) 4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2면>

이번 인사에 따라 김진호 인재양성과장, 유영걸 회계과장 등 1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신재준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유영춘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등 10명이 직위 승진했다.

행정자치부와 전남도 간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 나윤수 대외협력관이 승진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에 교류 파견되고, 김정완 개혁추진단장은 행

정자치부로 승진 전출됐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전남도의 첫 인사교류도 이뤄져, 김희원 건설방재국 도로계획 담당이 직위 승진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3명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파견됐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인사 교류는 이날엔 전남지사와 혁신도시 기관장협의

회에서 논의돼 성사됐다.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위해 나주시 남창규 경제건설국장이 지방행정연수원 급리터과정에 들어가고, 김홍남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직급 승진 후 나주시로 파견됐다.

전남도는 5급 이하 후속 인사도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 공모

전남도 다음달 4일까지... 2월말 발표

전남도가 민선 6기 브랜드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015년 사업 대상지를 오는 2월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전남지역 유인도 중 생태, 문화, 역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주민협회를 통한 결의 등 시·군과 주민의 참여 의지가 높은 섬이다.

신청한 섬에 대해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 별도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 8일 시·군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설명회를 가진 전남도는 공모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2월15

일까지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2월 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민선 6기 브랜드사업 기자 간담회에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개년 계획에 근거해 전남도는 풍광과 생태·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시·군과 주민의 의지가 강한 섬 6개를 올해 선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2개씩 추가해 10년간 모두 24개 섬을 가꾸게 된다.

이 사업에는 향후 10년 동안 국비 1064억원, 도비 564억원, 시·군비 1005억원 등 모두 2633억원이 투입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행 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

보증계약 서면만 유효... 민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출발 전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민법에 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민법이 아닌 여행사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됐었다.

보증제도도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선불리 보증을 썼다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6/7F 라식센터
- 4/5F 수술센터
-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농막·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발달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문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